

전북, 뉴욕서 글로벌 투자자 눈길 끌다

도, 금융·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주요 기업 등 대상 투자설명회

김관영 도지사, 새만금·금융허브 중심 전북 미래전략 직접 설명

전북이 세계 금융 중심지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금융과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의 주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김관영 도지사의 미국 출장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BIO USA 참석과 공공의과 일정 중 뉴욕을 방문해 블룸버그, 씨티은행,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등 세계적인 민간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북의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협력 가능

성을 모색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프로젝트와 금융허브도시 조성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전북의 신성장 동력을 소개했다.

특히 글로벌 최대 은행 씨티은행 임원도 직접 참석해 새만금과 전북에 대한 전략적 투자협력을 탐색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씨티은행은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폭넓은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설명회에는 금융사, 투자사 등

25개사를 비롯하여 바이오, IT 등 신산업 관련 미국 기업들은 물론 행정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가 기업들은 전북의 친환경 정책과 미래 산업 전략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전북과 새만금 현장 방문 의사도 밝혔다.

이날 설명회 이후에는 김관영 지사와 뉴욕에 거주하는 주요 기업인과의 간담회가 별도로 진행돼 전북의 기업 지원 정책과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도는 이를 계기로 해외 투자자들의 관계망을 넓히고 후속 미팅을 통해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투자설명회뿐만 아니라 설명회 전후 티타임과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 기업인들과 밀도있는 교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전현직 회장을 비롯한 한인 투자자들도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은 아시아의 중심이 될 새만금을 통해 탄소중립, 스마트 물류,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가 될 준비를 마쳤다"며 "전북의 성장성을 믿고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행정적 지원, 그리고 정주여건까지 균형 있게 갖춘 최적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화형 소재·소자

반도체 산업 육성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에 집적된 소재·소자 중심의 반도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협력에 나섰다.

도는 17일 백리항에서 동우화인켐, 한솔케미칼, KCC, 광전자, 오디텍, P&L세미, OCI 등 도내 핵심 반도체 소재 및 소자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육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를 전북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의 산업 전략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전북테크노파크 이광현 단장이 '전북형 반도체 산업 로드맵'을 소개하고, 전북대 임연호 교수가 '스마트 센서 집중센터 구축 방안'을 제안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 기업들은 실증 장비 확보, 연구 환경 개선, 지역 인재 양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서 소재·소자 국산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전북에 실증 테스트베드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산·학·관 협력 기반을 강화해, 전북만의 특화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내 반도체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스마트 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전북형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사진)가 17일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로부터 제출된 결산 승인안의 내역을 보면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2,906억 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2,921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1조1,235억 원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686억 원이다.

이번 심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됐는지,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요한 절차로 의회는 불예산 관리 전반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며, 오는 27일 3차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최종 확정한다. /남원=김기우 기자



G7 초청국 환영 리셉션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 시간) 캘거리 한 호텔에서 열린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수상 주재 리 호 호텔에서 열린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수상 주재

도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펼쳐

기획행정위, 원광대·원광보건대 찾아 주요 추진계획 청취

문화소방안전위, 전북 종합사격장서 시설 관리 실태 점검

농복합위,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개관식 참석

경산건위, 도내 벤처기업·신재생에너지 산업 현장 찾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제419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17일, 상임위원회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이날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대학을 글로벌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정된 원광대·원광보건대를 찾아 주요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4년~2029년 5년간 추진될 이번 사업의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및 글로벌대학 혁신과제 추진 성과에 대해 청취하고, 추진과제 실행을 위한 (원광대)자연식물원-무장애나눔길 힐링로드와 (원광보건대)시물레이션 실습실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임실군 청운면에 위치한전북자치

도 종합사격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파리 올림픽 이후 사격종목 선전으로 관심을 모은 가운데, 종합사격장의 운영 현황과 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운영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김제시 백구면에 새롭게 문을 연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방향과 향후 정책 연계를 점검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도내 벤처·중소기업 및 미래모빌리티·신재생에너지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업 현장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했다. /이만호 기자



17일 현장의정활동 일환으로 원광대·원광보건대를 찾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들이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있다.

"지속가능 미래 위협

붕동 소각장 반대한다"

윤수봉 전북자치도의원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김의)는 "주민건강과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소각시설 설치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등 완주군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이번 소각시설 설치 시도를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며, "주민과 함께 결연한 의지와 행동으로 완주군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문제가 되는 민간업체 삼비테크는 붕동을 구암리 일원(면적 1만7,766㎡, 용량 189.6톤)에 지정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8일 삼례읍 완주문화체육센터, 19일에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윤수봉 의원은 "소각장 예정지 인근에는 둔산리 및 삼봉지구 1만여 세대 가 밀집돼 있으며, 미니복합타운, 삼봉2지구까지 추가로 1만여 세대가 예정돼 있고,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는 점을 들어 아동·청소년의 건강은 물론 주거환경과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추진 및 수소기반산업 등 완주군 정책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해당 부지가 소각시설 설치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



무시하고 연면적만으로 획일화되어 적용되고 있어, 농가 등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7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규정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윤 의원은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선임 의무를 부과할 경우, 대형 축사처럼 기계설비가 미비한 건축물까지도 고가의 전문 인력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해야 하며, 2026년 4월부터는 해당 관리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 보유 의무까지 부과된다.

윤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가 건축물의 용도, 기계설비의 종류 및 관리 난이도 등을

고 강조했다.

특히 양돈농가의 경우, 넓은 부지에 단순한 기계설비만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차격 전문 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 현실은 운영비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선임 기준을 '연면적' 외에도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 규모, 난이도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장 실정에 맞는 유연한 기준 마련을 통해 농민의 부담을 덜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

혁신당 도당, "국가사업 추진 시 재정 여건 고려를"

공공기관 특별자치도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제안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당은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가 단지 명칭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치 역할을 토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광역 교통망 등 국가사업을 추진할 때 전북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나 수요 중심으로 짜인 현

재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전북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에 불리하므로, 특별한 평가 기준이나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특별자치도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러한 제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돼야만 진정한 지역 자치와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국정기획위원회의 책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부의장과 윤정훈 의원은 17일 매년 무주군을 찾아 실현형 체험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주한 미8군 장병들을 찾아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도의회, "미8군 장병들에 감사·격려"

"무주·전북 위상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 계기"

미8군 장병들, 매년 무주서 실현형 체험 훈련 실시해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부의장과 윤정훈 의원은 17일 매년 무주군을 찾아 실현형 체험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주한 미8군 장병들을 찾아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미8군 장병들은 매년 무주군을 방문해 서바이벌 게임과 ATV 체험을 통해 전투 감각을 유지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훈련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체험 인프라를 갖춘 무주를 실전훈련지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의 우호적인 교류도 지속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도의회 김희수 부의장과 윤정훈 의원은 문승우 의장을 대신해 무주 특산품인 머무주를 격려품

으로 전달하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전북 무주와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제적 우호 교류는 단순한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며, "미8군 장병들의 지속적인 방문이 무주와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미8군과 지역사회 간 신뢰와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실질적 협력과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